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Volunteering on Career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강종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ong-Soo Kang(jskang@kangwon.ac.kr)

요약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전공생들에게 졸업 후의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 상담 및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소재 4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중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208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였고, 진로발달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전공생의 진로결정수준은 2.65점, 진로준비행동은 2.28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년과 참여적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에는 자원봉사만족도와 참여적극성이, 진로준비행동에는 학년과 자원봉사만족도가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관련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전공지식의 실천기회와 경험을 통해 봉사활동 이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자원봉사활동 | 진로발달 | 진로결정수준 | 진로준비행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volunteering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208 university students in Kangwon-do was conducted and the data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is 2.65,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s 2.28. By using a multiple regression, volunteering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activ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grade and volunteering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tudy finally discuss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volunteer strategies on the results.

■ keyword : | Volunteering | Career Development | Career Decision Level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I. 서론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갖는 일반적인 장점에 더해 사

회복지학 전공생에게 자원봉사활동은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 대학생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발전과 성

* 2013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구성비로 연구하였음

접수일자 : 2015년 04월 29일

수정일자 : 2015년 06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6월 19일

교신저자 : 강종수, e-mail : jskang@kangwon.ac.kr

속에 기반이 되는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자기 적성 발견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잠재적인 지도력을 개발하여 학습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하며 민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1]. 여기에 더해 사회복지학 전공생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실천의 원리와 과정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노력을 배양함으로써 보다 높은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즉 사회복지학 전공생에게 자원봉사활동은 전공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미리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일종의 중요한 학습활동이다. 그리고 전공 관련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이 학습한 전공 지식을 입상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거나 갈등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2].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현재는 수요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713,224명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며, 2014년 한 해에만 77,087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다[3]. 그럼에도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의 진로결정수준 내지 진로준비행동 등의 진로발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태순과 황혜원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발달수준이 평균 2.45점[4], 정진희 등의 연구에서는 2.49점으로 나타나 4점척도의 중간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진로준비행동은 더 낮은 2.29점으로 나타났다[5].

대학생의 경우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진로결정과 취업은 청년기 대학생의 중요한 과제이며 가장 큰 스트레스이다[6]. 대학 상담기관을 이용하려는 학생 중 상당수가 진로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7], 대학생활 중 도움을 받고 싶은 첫 번째 상담 영역이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진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8]. 직업은 일에 대한 애정과 긍지, 만족과 보람을 통한 자아실현적 의미와 함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의 수단이므로 자기 진로

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직업에 대한 신중한 선택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2][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이라는 목표 때문에 진로발달이 충분한 시간을 걸쳐서 체계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대학재학이라는 짧은 시기동안 가능한 진로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해내야 한다[10]. 특히 흥미와 적성보다는 학업성과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결정과정에서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11]. 사회복지 인력의 과다배출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이직률 등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은 진로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대학 입학이라는 목적을 갖고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재학 중 사회복지학 전공에 대한 높은 학업성취도와 장래를 위한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학 재학기간은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바로 전 단계이고 사회복지학 전공생에게 갖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감안하면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결정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아주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간호학, 작업치료학 등의 분야에서 전공관련 자원봉사활동이 전공만족도와 직업존중감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2][12].

그럼에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자원봉사 참여형태에 따른 활동만족도[13],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요인[14-16], 직무특성 분석[15], 자원봉사가 자존감 등에 미치는 영향[2] 등이 수행되었으나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대학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등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로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졸업 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학문적 및 실천적 의의가 높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으로 대표되는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공연계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자각, 스스로 타인에게 또는 타인과 더불어 봉사하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인격성장과 잠재능력을 실현 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성숙하고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은 대학생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스스로에게 자아실현의 기회와 사회지도자로서 역할과 안목을 기르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원봉사는 활동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생 스스로 변화와 성장 등의 유익성을 가지고 있다. 즉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활동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는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양면성을 지닌 활동이라 할 수 있다[17].

특히 전공연계 자원봉사활동은 교육적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봉사활동의 체계와 교육, 활동의 주축이 모두 대학 혹은 학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교육의 체계적, 기능적 변화는 기존의 대학봉사활동의 전문화, 교육화, 지속화의 강화를 통한 전문적 대학봉사활동의 필요성과 확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위해 보다 전문교육과 결합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라는 맥락에서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 즉, 전공연계 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18][19].

대학생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은 학과 전공에 대한 학

습 결과를 사회에 직접 환원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 인력이 사회에 참여한다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기관과 자원봉사자와 같은 유용한 자원을 중심으로 사회 관계망(social network)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클라이언트를 위한 가용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진로발달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전공이나 졸업 후의 직업분야의 선택을 의미한다[20]. 진로발달은 흔히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으로 대표된다.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이란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로서 [20],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말한다[20][21]. 일반적으로 진로결정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서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진로준비를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목표 실현 과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며, 진로결정 이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20]. 진로준비행동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정보수집 활동으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 즉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물론이고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 가령 전망, 입직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도 포함된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자기가 목표한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기자재 또는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다. 물론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등

을 획득하는 일도 포함된다. 셋째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로와 관련된 전문서적 등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진로발달의 중요한 두 측면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진로결정수준은 높지만 진로준비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진로준비행동은 높지만 아직 진로가 미결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개입함이 진로지도와 상담에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진로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런 준비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로의 인지 측면뿐 아니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적인 측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3. 자원봉사활동과 진로발달의 관계

대학생의 경우 전공연계 자원봉사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미리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공분야 자원봉사는 전공지식을 입상에 적용해 봄으로써 직업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부여해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만족도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2], 간호학 등의 경우서도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작·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론적으로만 접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적성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자원봉사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시켜 주어 높은 자원봉사활동만족도를 가져오며, 또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대일[23]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 특성과 자아개념을 통제한 후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봉사시간, 봉사형태, 봉사유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봉사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이, 그리고 봉사시간이 많

을수록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 자원봉사는 자신이 학습한 전공 지식을 입상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거나 갈등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2][12].

III. 연구방법

1. 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4년 2학기 현재 강원도 소재 4년제 대학 중 영동과 영서지역 각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대학별로 방문하여 임의표집으로 선발된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조사의 취지와 방법 등을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4개 대학별로 60부씩 총 240부를 배포하고 이 중에서 218부를 현장에서 회수하였다(회수율 90.8%). 다만 응답의 일관성이 없거나 중화화 경향 및 무응답이 많은 불성실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2.1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기관, 봉사활동 빈도, 참여 적극성 및 자원봉사활동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 중에서 자원봉사활동만족도는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가 경험하는 봉사활동에 충분하고 흡족해 하는 마음의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오효근[1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7문항을 합산하여 총 합척도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로 나타났다.

2.2 진로결정수준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등[24]이 개발하고 고향자[25]가 번안한 진로결정수준 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사용하였다. 다만 원 척도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유보고식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에 관한 2문항과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학문분야 내지 구체적인 진로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문항들에 ‘사회복지직’ 혹은 ‘사회복지사’로 표기하여 사회복지직으로서의 진로결정임을 명확히 하였다. 가령 1번 문항은 “나는 사회복지직으로서의 진로를 결정했으며...”, 3번 문항은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지만...”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중간값이 없는 4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진로 미결정수준은 역점수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은 $\alpha=.75$, 교육과 진로 미결정의 전제조건은 $\alpha=.87$ 로 나타났다.

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2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라는 세 가지의 차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역시 원 척도는 사회복지직 내지 사회복지사로서의 진로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가령 1번 문항을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사회복지사 적성과 사회복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준비행동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4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alpha=.86$ 이며 하위구성요인으로 정보수집활동은 $\alpha=.70$,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은 $\alpha=.73$,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alpha=.77$ 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수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진로결정수준(전체)	18	.87
- 전공선택 확신수준	2	.75
- 진로미결정 전제조건	16	.87
진로준비행동(전체)	18	.86
- 정보수집활동	6	.70
-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5	.73
-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7	.77
자원봉사활동만족도	7	.87

3. 자료분석 방법

본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주요 변수의 수준 및 자료의 분포적 특성은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 및 봉사활동 실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진단한 후에 자원봉사활동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별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총 208명으로 이 중에서 성별로 남학생이 86명 41.3%이고, 여학생이 122명 58.7%로 여학생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균등하게 할당되지 못해 2학년이 78명(37.5%), 다음으로 1학년 62명(29.8%), 3학년 47명(22.6%), 4학년 21명(10.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64명(30.8%), 21세 54명(26.0%), 22세 23명(11.1%), 23세 67명(32.3%), 24세 이상 40명(19.3%)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특성상 예비역 등 복학생이 때문에 학년 분포와 연령 분포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86	41.3
	여	122	58.7
학년	1학년	62	29.8
	2학년	78	37.5
	3학년	47	22.6
	4학년	21	10.1
연령	20세 이하	64	30.8
	21세	54	26.0
	22세	23	11.1
	23세	67	32.3
	24세 이상	40	19.3

2.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대상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주된 자원봉사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이 49명(23.6%),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 61명(29.3%), 장애인복지시설이 24명(11.5%), 그리고 가족·정신보건·기타가 74명(35.5%)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빈도로는 월 1회 이하가 96명(46.2%)으로 가장 많고 2주 1회는 29명(13.9%), 매주 1회는 70명(33.7%), 매주 2회 이상은 13명(6.2%)로 나타났으며, 참여적극성에 관해 적극적인은 76명(36.5%)와 매우 적극적이 17명(8.2%)에 반해 소극적은 14명(6.7%)와 매우 소극적은 19명(9.1%)로 나타나 대부분 적극적인 자세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자원봉사 시설	노인복지시설	49	23.6
	아동·청소년복지시설	61	29.3
	장애인복지시설	24	11.5
	가족·정신보건·기타	74	35.5
자원봉사 빈도	월 1회 이하	96	46.2
	2주 1회	29	13.9
	매주 1회	70	33.7
	매주 2회 이상	13	6.2
참여적극성	매우 소극적	19	9.1
	소극적	14	6.7
	보통	82	39.4
	적극적	76	36.5
	매우 적극적	17	8.2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들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평균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만족도는 5점 리커트척도의 중간값 정도인 3.09(SD=.45)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은 4점 리커트 척도에서 2.65(SD=.4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구성요소 중 진로전공 확신수준은 2.80으로 다소 높은 반면에 진로미결정 전제조건은 2.6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2.28(SD=.44)으로 중간값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구성요소 중 정보수집활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2.47인 반면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각 2.25, 2.14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왜도와 첨도값을 통해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인 기준인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10미만에 해당하여 안정적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값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자원봉사만족	3.09	.45	1.00	4.00	-.98	4.28
진로결정수준	2.65	.46	1.11	4.00	.36	-1.17
-진로전공 확신수준	2.80	.79	1.00	4.00	-.62	-1.16
-진로미결정 전제조건	2.64	.48	1.63	3.75	.35	-1.14
진로준비행동	2.28	.44	1.10	4.00	-.06	.71
-정보수집활동	2.47	.48	1.00	4.00	-.16	.22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2.25	.56	1.00	4.00	-.11	.40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2.14	.51	1.00	4.00	.18	.68

4.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진로발달의 상관관계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진로발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과 연령은 진로발달 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참여적극성과 자원봉사활동만족도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자원봉사활동만족도는 진로발달의 두 측면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빈도는 연령과 학년과 무관하며, 자원봉사활동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수준이나 $r=.34$ 에 그쳤고, 반면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4^{***}$).

표 5.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진로발달의 상관관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연령	1						
②학년	.78***	1					
③자원봉사 빈도	.15*	.06	1				
④참여적극성	.17*	.03	.54***	1			
⑤자원봉사만족도	.06	.09	.34**	.63***	1		
⑥진로결정수준	.56***	.36	.38*	.43***	.51***	1	
⑦진로준비행동	.51***	.54***	.15	.54***	.45***	.54***	1

*p<.05, **p<.01, ***p<.001

5. 인구사회 및 봉사실태별 주요변수 비교

인구사회적 특성인 성별, 학년과 자원봉사실태 특성인 자원봉사 시설, 자원봉사 빈도 및 참여적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첫째, 인구사회 및 자원봉사실태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 자원봉사 빈도와 참여적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과 자원봉사 시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았으며, 자원봉사 빈도에서는 월 1회 이하가 다른 빈도에 비해 낮았고,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자원봉사 빈도와 참여적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외의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월 1회 이하 혹은 2주 1회 보다는 매주 1회 혹은 매주 2회 이상이 높았으며, 적극적 혹은 매우 적극적 집단이 소극적 참여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은 학년과 참여적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이 될수록 그리고 소극적 참여 보다는 적극적 혹은 매우 적극적일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원봉사활동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적 특성인 성별 및 학년과 봉사실태 특성인 자원봉사 시설, 자원봉사활동 빈도, 참여적극성 및 자원봉사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학년과 연령은 높은 상관관계($r=.78$)로 인해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어 보다 선명한 지표인 학년을 투입하였고, 나머지 독립변수 간에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

표 6. 인구사회 및 자원봉사실태에 따른 주요 변수 비교

변수	자원봉사만족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평균 (SD)	t/F	평균 (SD)	t/F	평균 (SD)	t/F	
성별	남	3.11(.52)	.52	2.66(.44)	.50	2.34(.51)	1.52
	여	3.08(.41)		2.65(.47)		2.23(.44)	
학년	1학년a	3.11(.40)	2.42* (b(a,c,d))	2.70(.40)	.33	2.19(.39)	4.52*** (a,b(c,d))
	2학년b	3.00(.54)		2.64(.55)		2.22(.47)	
	3학년c	3.14(.32)		2.64(.47)		2.39(.44)	
	4학년d	3.26(.33)		2.60(.31)		2.51(.31)	
자원봉사 시설	노인복지시설	3.14(.29)	1.34	2.58(.48)	1.74	2.38(.43)	1.56
	아동·청소년복지시설	3.13(.47)		2.71(.51)		2.28(.45)	
	장애인복지시설	3.14(.40)		2.67(.31)		2.29(.36)	
	가족·정신보건·기타	3.01(.51)		2.65(.44)		2.20(.46)	
자원봉사 빈도	월 1회 이하a	2.96(.48)	5.32*** (a(b,c,d))	2.59(.43)	2.88* (a,b(c,d))	2.25(.45)	.25
	2주 1회b	3.18(.36)		2.64(.47)		2.29(.43)	
	매주 1회c	3.24(.44)		2.86(.48)		2.31(.49)	
	매주 2회 이상d	3.21(.38)		2.75(.42)		2.33(.38)	
참여적극성	매우 소극적a	2.51(.39)	20.67*** (a,b(c(d,e)))	2.41(.32)	4.81*** (a,b(c,d,e))	2.00(.52)	3.19** (a(b,c(d,e)))
	소극적b	2.84(.34)		2.44(.40)		2.26(.48)	
	보통c	3.05(.26)		2.62(.41)		2.27(.29)	
	적극적d	3.23(.53)		2.73(.51)		2.31(.49)	
	매우 적극적e	3.52(.69)		2.97(.48)		2.50(.56)	

*p<.05, **p<.01, ***p<.001

이 상관계수가 높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회귀모형은 각 특성별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모형별로 독립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우선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만 투입한 인구사회모형에서는 두 변수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실태모형에서는 참여적극성($\beta=.29, t=3.89^{***}$)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12$), 자원봉사만족도를 추가한 최종모형에서는 참여적극성($\beta=.11, t=2.32^{***}$) 및 자원봉사만족도($\beta=.36, t=4.75^{***}$)가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1$). 각 모형별로 R^2 값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에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인 성별이나 학년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자원봉사 실태와 관련해 시설이나 빈도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참여를 통해 자원봉사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구사회모형에서는 학년($\beta=.24, t=3.52^{***}$)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07$), 자원봉사실태모형에서는 역시 학년($\beta=.23, t=3.29^{***}$)과 참여적극성($\beta=.22, t=2.96^{***}$)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R^2=.12$), 자원봉사만족도모형에서는 학년($\beta=.20, t=3.03^{**}$)과 자원봉사만족도($\beta=.30, t=3.86^{***}$)가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8$). 각 모형별로 R^2 값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자원봉사 실태와 관련해 시설이나 빈도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진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강원권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2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사회복지학생들이 졸업 후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분석을 통해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등 비교적 다양한

표 7. 자원봉사활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모형		자원봉사실태모형			자원봉사만족도모형		
		β	t	β	t	VIF	β	t	VIF
(상수)			21.31***		18.05***			5.41***	
인구사회 특성	성별(여)	.02	.30	.02	.30	1.03	.01	.22	1.04
	학년	.06	.72	.05	.72	1.07	.08	1.19	1.08
자원봉사 실태	자원봉사시설 (노인복지시설)			.12	1.58	1.41	1.12	1.55	1.42
	(아동·청소년복지시설)			.03	.33	1.52	.04	.51	1.52
	(장애인복지시설)			.01	.24	1.31	.00	.05	1.32
	자원봉사빈도 (2주 1회)			.09	1.13	1.46	.08	1.12	1.46
	(매주 1회)			.06	.70	1.41	.06	.88	1.41
	(매주 2회 이상)			.03	.44	1.13	.02	.25	1.13
	참여적극성			.29	3.89***	1.28	.11	2.32**	1.67
자원봉사만족도							.36	4.75***	1.42
R^2 (Adj. R^2)		.00(.01)		.12(.08)			.21(.17)		
ΔR^2		-		.12			.09		
D-W		2.12		2.16			2.20		
F		.43		2.90**			5.15***		

*p<.05, **p<.01, ***p<.001

주) 성별(0)=남성, 봉사시설(0)=가족·정신보건·기타, 봉사빈도(0)=월1회 이하

표 8. 자원봉사활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모델		자원봉사실태모델			자원봉사만족도모델		
		β	t	β	t	VIF	β	t	VIF
(상수)			18.37***		14.70***			4.28***	
인구사회 특성	성별(여)	-.11	-1.64	-.09	1.44	1.04	-.09	-1.41	1.04
	학년	.24	3.52***	.23	3.29***	1.07	.20	3.03**	1.08
자원봉사 실태	자원봉사시설 (노인복지시설)			.06	.77	1.41	.07	.88	1.41
	(아동·청소년복지시설)			.07	.78	1.52	.05	.69	1.52
	(장애인복지시설)			.03	.43	1.31	.02	.27	1.32
	자원봉사빈도 (2주 1회)			.05	.62	1.46	.05	.70	1.46
	(매주 1회)			.06	.83	1.41	.07	.96	1.41
	(매주 2회 이상)			.01	.10	1.13	.02	.26	1.13
	참여적극성			.22	2.96**	1.28	.07	.83	1.67
자원봉사만족도							.30	3.86***	1.42
R ² (Adj. R ²)		.07(.06)		.12(.08)			.18(.14)		
ΔR^2		-		.05			.06		
D-W		1.75		1.72			1.69		
F		7.41**		2.97**			4.36***		

*p<.05, **p<.01, ***p<.001

주) 성별(0)=남성, 봉사시설(0)=가족·정신보건·기타, 봉사빈도(0)=월1회 이하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빈도 역시 월 1회 이하가 과반에 가까웠지만 매주 1회가 33.7%, 매주 2회 이상도 6.2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참여율로 판단된다. 또한 참여적극성에서는 적극적으로 소극적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둘째,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결정수준은 평균 2.65점, 진로준비행동은 2.28점으로 나타나 4점 리커트척도의 중간값 내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전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4][5].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사회복지학 전공생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확신과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없는 정도이다. 특히 진로준비행동 중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각 2.25, 2.14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 후 사회복지직으로 취업하겠다고 막연히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준비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진로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년과 연령은 진로발달 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자원봉사활동만족도는 진로발달의 두 측면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빈도는 연령과 학

년과 무관하여 고학년이라 하여 더 자주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사회적 특성 및 자원봉사실태 특성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만족도에서는 학년과 자원봉사 빈도 및 참여적극성에서, 진로결정수준에서는 빈도와 참여적극성에서,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서는 학년과 참여적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결국 활동 빈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원봉사활동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진로발달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리고 자원봉사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영향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결국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활동만족도가 높다면 진로발달에 도움 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만족도는 높이고 이를 통해 참여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고용기회가 부족하여 청년실업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학생

들이 본인의 장점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현장의 실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전공관련 자원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전공관련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 중 본인에게 적합한 분야를 찾아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자원봉사 연구들이 지속성이나 만족도 중심으로 진행됨에 비해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고, 전공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원봉사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생의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주로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의 활동과 기관과의 연계 내지 협력체계 부족으로 인한 지속성 및 참여동기 약화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13][14]. 따라서 대학의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돕는 역할도 해야 한다[13].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실습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각 학과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봉사에 기초한 학습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으며 대학의 바람직한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자기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직업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이나 빈도와는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발달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그 직무가 단순하고 다양한 업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만족도가 낮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5]. 낮은 만족도는

참여적극성과 빈도를 떨어뜨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계속 재교육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생들이 더 많은 정보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와 만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본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진로 범위를 특정하지 못해 다양한 사회복지직의 영역과 매칭을 하지 못한 점이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자료수집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조사이며, 자료 수집이 강원도에 한정되고 횡단적 연구이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실태에 관해 슈퍼비전 체계나 시간의 적절성, 특히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안수향, *한국대학생 자원봉사의 동기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2] 박소연, 김진경, 이택영, “대학생의 전공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pp.376-384, 2011.

[3] <http://www.welfare.net/>

[4] 김태순, 황혜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전문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제9권, pp.97-126, 2009.

[5] 정진희, 원미순, 이수진,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

권, 제7호, pp.228-237, 2013.

[6] H. S. Jang, "The Source of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32, No.1, pp.101-115, 2000

[7] 김은영,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벽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8] 금명자, 남향자, "전국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제31권, 제1호, pp.105-127, 2010.

[9] 김홍규, 근로자의 갈등해소와 근로의욕 성취를 위한 관리자의 영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2.

[10] 박선희, 박현주,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6권, 제1호, pp.67-81, 2009.

[11] 남아란, 하정, "대학생의 진로유형선택과 진로미결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청소년시설환경, 제10권, 제3호, pp.27-37, 2012.

[12] 신민아, 안권숙, "치위생학, 간호학 전공 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직업존중감 조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enc, 제12권, 제6호, pp.1090-1100, 2012.

[13] 권지성, 자원봉사 참여형태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4] 오효근,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 강종수, "자원봉사활동 직무특성이 활동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322-330, 2012.

[16] 설경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향후 지속성 예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7] 송금희, 자원봉사론, 대왕사, 2005.

[18] 여지은, 체육전공연계 봉사활동 경험의 교육적 가치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9]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대학의 봉사학습 활성화

화를 위한 실천프로그램 연구, 2006.

[20] 김봉환, 대학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21] C. R. Wanberg and P. M. Muchinsky,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l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9, No.1, pp.71-80, 1992.

[22] 이미숙, 사회봉사활동이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3] 오대일, 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4] S. H. Osipow, C. G. Carmey, and A. Barak,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9, pp.233-243, 1976.

[25] 고향자,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 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저 자 소 개

강 종 수(Jong-Soo Kang)

정회원



- 1998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산업복지학과(문학석사)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2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